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제948호

5600원 어치 식당 아주머니의 한 시간

근로장학생은 임금 인상, 근로자는 최저시급

학교 지원금 0원, 임대료·시설유지비도 자체부담

생협, “백두관 식당 적자 커서 어쩔 수 없어”

“어휴 처음 오는 사람은 힘들어서 다 도망가, 우리처럼 5~6년 일하면 몸에 배어서 그냥 참고 하는 거지.”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희영(가명) 아주머니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운영하는 백두관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하고 3일에 한 번은 새벽 6시에 출근해야 한다. 매일 18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한다. 그리고 그대로 시간 당 최저시급 5600원을 받는다. 평직원 10명의 평균 월급은 13만7600원이다.

백두관 식당에서는 현재 12명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원래 15명이었지만 계약직 3명이 힘들어 그만두었다고 한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수년간 근무한 베테랑들이다. 근무 년수는 평균 8년이고 18년 동안 일하고 있는 조리원도 있다.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범한 주부들이다. 김희영씨는 이 정도 불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말에 쉬는 맛에 일한다고 한다. 하지만 고된 노동의 반복으로 허리디스크에 걸려 병원을 제집 다니듯 한다.

직원뿐만 아니라アルバ들도 고되고 마찬 가지였다. 퇴식구에서 설거지하는アルバ는 시간 당 9500원을 받음에도 너무 힘들어 하길 꺼려한다. 그래서 요즘은 몽골인, 중국인 학생이 대신 일한다. 힘들기로 소문나 직원은 물론 알바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백두관 식당을 이용하는 구성원에게 식당 아주머니와 근로장학생들이 정성스럽게 배식하고 있다.

약속했다(947호 ‘생협 업무보조장학생 위한 예산 늘린다’ 참조).

황우화 생협 사무국장은 “근로장학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로 책정되지 않는 다”며 구분해서 봐야함을 주장했다. 그는 이

전지민 기자

장애지원센터 학생회관 2층으로 이관

여학생 수면실과 위치 변경

장애학생들 용이한 접근 기대

센터 설립 이후 7년만의 일이다.

일부 장애학생들은 그동안 센터의 위치가 장애학생들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며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 또한 942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장애지원센터)에서 비정상적인 센터의 위치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학교 측에서 센터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고 12월 중으로 장소를 변경 할 것을 결정했다.

장소가 2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학생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학생회관 뒷문을 통해 센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된다. 기존 여학생수면실에 있던 장판이 철거되고 기존 장비들이 2층으로 옮겨진다. 또한 센터 내부 리모델링 작업이 이뤄진다.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우선은 학교 내 공간 부족으로 2층으로 임시적으로 장소를 이전하게 됐다”며 “센터위치의 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장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학생회관 3층에 위치했던 장애지원센터가 2층 기존 여학생수면실이었던 방으로 옮겨진다.

모바일학생증 불편만 ‘가중’

코드 인식 및 실행 오류 빈번

생년월일 없어 신분 증명 불가

지하고자 로그인을 통해 접속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통신이 불가할 때 앱이 실행되지 않거나 로딩시간이 길다는 의견을 냈다.

모바일 학생증은 카드학생증과 달리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현준(에너지공학과 1) 학생은 “모바일 학생증은 주점 같은 업체에서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하염드리며 접속해 확인을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도서관 허정임 수석기획팀장은 “모바일 학생증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며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원한다면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들은 모바일 학생증의 통신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중앙도서관은 모바일 학생증을 제작할 때 도움을 받았지만 기자

단선된 동연 선거… 정책토론회 개최

‘CHANGE’ 내부사정 불출마

비현실적인 축제 예산 지적

증을 품었다. 학교 축제를 탑동에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학 정입후보자는 탑동에서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성재(사학과 3) 학생은 “대동풀이 예산이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은 동아리연합회의 1년 총예산을 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학(경영정보학과 2) 정입후보자는 “동아리연합회 예산 일부와 나머지는 외부 스포츠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우산비닐커버 설치 공약에 대해 김성빈(언론홍보 1) 학생은 “우산비닐커버를 곳곳에 설치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쓰레기가 많아질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학 정입후보자는 “비닐커버 옆에 쓰레기통을 두고 최대한 쓰레기배출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정·부입후보자들의 의견불일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한 정책에 관한 예산이 자세히 설명되지 않아 많은 질문들이 쇄도했다. 김이래 기자

이번 학기는 제948호 신문으로 종간합니다. 다음호는 2016년 2월 19일(제949호)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신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 계획을
적극 환영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

도민의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힘으로
제주 제2의 도약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갑시다!

상대적으로 협약 적어 학술자료 검색 어렵다

제주대 총 45곳 기관과 협의, 거점대 중 가장 낮아
예산부족 및 학술업체 독점 문제 해결해야

제주대가 타 국·공립대들에 비해 전자저널 및 학술DB업체와의 협약이 저조해 교내 구성원들이 자료를 찾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학술업체 12곳과 국외학술업체 33곳, 총 45개의 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다.

이는 △서울대 308개 △부산대 119개 △전남대 109개 △충남대 88개 △경북대 83개 △강원대 81개 △충북대 80개 △경상대 77

개 △전북대 73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학술DB업체들과의 협약이 적은 것은 곧 교내구성원들의 연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협약사이트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이는 우리대학의 4대목표 중 하나인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점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권유성(국어교육과) 교수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준비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1~2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고 자료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며 “학교 측에서 학술자료지원 같은 것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중앙도서관은 예산 부족문제와 학술업체들이 독점구조를 악용한 구독료 인상을 지적했다. 실제 2013, 2014학년도 기성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2013년 약 13억원으로 책정돼 있던 도서관 예산이 2014년에는 약 10억원으로 줄었다.

더불어 예산 중 단행본,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비도서자료 구입 등에 쓰인 실제 자산 취득비(자료구입비)는 △2011년=6억5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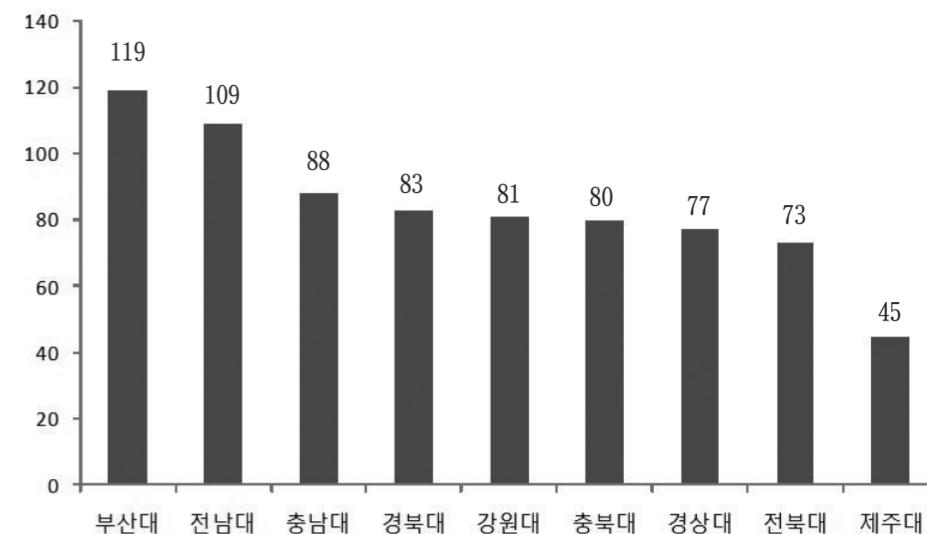
만원 △2012년=8억7020만원 △2013년=10억5428만원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해왔지만 △2014년=8억525만원으로 37.8%가 줄었다. 또한 학술 출판사들은 매년 10% 내외의 구독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도서관 허정임 수석기획팀장은 “몇 년간 우리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로 전체 예산이 감액되는 추세여서 도서관 예산도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더불어 학술업체에서 제공하는 학술DB의 경우 독점판매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돼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도 교내 구성원들의 연구를 돋기 위해 전자저널을 추가 구독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체 중 하나인 DBPIA 관계자는 “관공서나 대학교 같은 곳에서는 1년 단위로 전체 구독률을 측정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이래 기자

<지역거점대 협약 체결 학술업체 수 비교>



전국은 물론 거점대에서도 가장 싼 제주대 등록금

연재기획 등록금 집중 해부〈完〉 학생들 납부하는 실질등록금

실질등록금 127만1500원… 무작정 인하가 능사는 아니다

지원 및 교육의 질 침해 우려, “체계적인 장학금 분배 우선”

“여러분이 체감하는 등록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내일로’ 내년 예비 총학생회는 등록금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학생들을 위한 장학혜택을 확대하고 복지 예산을 지켜내 실질적인 인하도 같이 이룬다는 입장이다.

강민우(환경공학과 4) 당선자는 “공약에도 내새웠듯이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등록금 인하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일부 구성원들은 등록금을 더 이상 낮추면 대학 환경과 교육의 질 등이 침해됨을 우려했다.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서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등록금만 계속해서 인하한다면 정작 필요한 사업과 복지 등이 마련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작년 우리 대학의 1인당 등록금과 장학금 현황은 △명목 등록금=378만2400원 △실질등록금=127만1500원 △교내외 장학금=76만1700원 △국가장학금=174만9200원으로 밝혀졌다. 모두 작년 한해 학부생 기준 평균으로 분석됐으며 학생 평균 학기당 약 60만원의 등록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도출된다.

명목등록금은 학생들이 배부 받은 고지서에 명시된 등록금을 일컫는다. 실질등록금은 학생들이 수여 받은 교내외·국가·기

타장학금을 명목등록금에서 뺀 후 남은 등록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대학 소속 A라는 학생이 학기당 납부해야 할 등록금은 160만원인데 C급장학금으로 54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실질등록금이 104만원이다.

대학연구교육소가 올해 전국의 모든 국

립 일반대학의 명목등록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41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대 명목등록금은 40만원이나 적은 수치다. 대교연은 국립대학의 전 계열(인문사회·자연과학·예체능·공학·의학) 등록금이 2011년보다 인하됐으며, 인하율은 사립대학보다 다소 커졌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1월, 전국 97개 대학의 학생 1인당 등록금과 장학금 현황을 통해 후분석한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제주대는 명목등록금은 94위. 실질등록금은 90위로 학생들이 전국 최저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 거점대학 중 실질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충남대로 170만7000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명목등록금은 경북대가 429만1600원으로 거점대 중 최상위를 차지했다. 거점대 비교에서도 제주대는 실질, 명목등록금 모두 최하위에 머물렀다.

조두환 학생복지과 장학팀장은 “등록금을 낮추게 되면 당장 학생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복지와 사업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무작정 인하하는 것보다 현재 장학 제도를 개편해 양자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하는 것에 급선무다”고 말했다.

<지역거점대 실질등록금 비교>

대학	실질등록금
강원대	165만9300원
경북대	158만4500원
경상대	134만6300원
부산대	151만700원
전남대	152만5500원
전북대	166만700원
충남대	170만7000원
충북대	160만100원
제주대	127만1500원

그는 이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재원도 10억원이나 남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규정대로 소득분위에 맞춰 수혜해야 하나 성적기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이 많아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교내장학금도 A급, B급, C급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 등록금의 100%, 70%, 40%, 20% 면제 등 세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작은 변화가 학생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승규 기자

제주대 학생팀, 영어경연대회서 우수상 수상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 사업단(단장 정광중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교수, 사리캠퍼스 부총장)은 일본 도쿄기쿠이대학에서 열린 한일 공동주최 영어모의수업경연대회(IGT, I am a Global Teacher)에서 Difference팀(초등교육과 강명훈·양

지희·강병권)과 I.C.E.팀(영어교육과 고지형·이현경·고다원)이 각각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출전한 팀 가운데 제주대가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문가 평가와 청중 평가를 합산한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는 이번 대

회에서 제주대 팀은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번 대회에는 제주대를 비롯해 경북대, 경인교대, 한국교원대, 도교가계이대에서 각 2개 팀씩 총 10개 팀이 참여했다.

Difference팀의 수업 주제는 ‘Making and Playing the Simple Instrument’이며 ICE(International Creative Education)

team은 ‘Volcanic Creation & Effects with Grandma Seolmoonde’였다.

한편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4개 대학 GTU사업단은 공동으로 해마다 교·사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모의 수업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번째로 1박2일 일정으로 열렸다. 백승규 기자

성 상담 위한 양성평등센터 설립 예정

교육에 그치지 않은 의식 개선 필요



양성평등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구성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성별적 예방과 사건 처리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전담기구가 곧 제주대에 설치된다. 기구는 ‘제주대학교 양성평등센터(기정)’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11월 26일 1,239부 세 차례로 나뉘어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허향진 총장과 김철수(전산통계학과 교수) 교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부는 배은경(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초청강연으로 시작됐다. 배은경 교수는 “한국사회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치며 급속성장을 해왔다”며 “때문에 세대 간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달라 세대마다 생각하는 평등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젠더 갈등의 해소는 성역할 인식에 대한 서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정유남(의학전문대학원 신경과 학교실) 교수는 타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양성평등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은주(간호학과) 교수는 지난 2013년 우리대학에서 일어났던 K교수의 강제성추행사건 처리의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성희롱 전담기구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홍은혜 총여학생회장은 “양성평등을 위해 남학우와 여학우의 의견을 듣고 서로를 이해시키는 것이 총여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백승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 JUMP news.jejunu.ac.kr

사람들

이동민 전기공학과 4학년

‘201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이동민(전기공학과 4)씨가 11월 27일 ‘2015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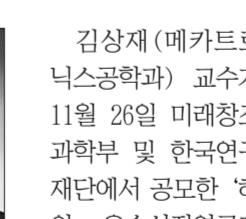
이씨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동 주최로 이날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바르게 키워주신 부모님,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신 교수님들, 꿈을 주신 대경엔지ニア링 사장님들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수상의 무게감을 짊어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제가 받았던 도움 이상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10년 후 제주도에서 스마트그리드 전문가로서 성공과 창업이라는 꿈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3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협약체결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대학생 모바일 ICT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산업체 협약체결 수기 공모전 대상 등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전기기사 등 6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백승규 기자

김상재 메카트로닉스공 교수
해외우수신진연구자 선정



김상재(메카트로닉스공과) 교수가 11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재단 공동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 사업(Korea Research Fellowship)’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잠재력을 있는 해외 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한국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국제 연구인력 교류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에 공동참여하는 아난다구말 라마도스(30·인도) 박사는 현재 KAIST에 근무하고 있으며, 제주대 박사과정 중에 ACS Nano(인용지수 13), Nano Energy(인용지수 10) 등 주요 외국 학술지에 15편의 우수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인정돼 졸업 시에 제주대 ‘우수연구논문 총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구책임자인 김상재 교수는 라마도스 박사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자체촉진수 퍼페시터 및 응용시스템의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제주대 석·박사 연구원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제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백승규 기자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 국립제주대학교

2016학년도 전기대학원 일반전형 신입생 모집

실습 추억 속 아쉬움 담았다

연재기획 교생의 눈물 <完> 학생들과 3주간의 긴 여정을 마치며

기대와 다르게 직설적인 아이들의 말에 상처받기도 진심어린 편지와 칭찬으로 끝까지 버텨낸 교생들

정신없이 지난간 3주간의 실습이 끝나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여정의 마침표를 드디어 찍게 됐다. 항상 교생들을 밤샘으로 이끌었던 수업 준비와 우리를 항상 시험에 들게 했던 학생들과의 추억들, 교생들의 어깨 위에 짊어진 책임이란 이름 아래 힘이 들다가도 아이들의 작은 재롱 하나에 다시 금힘을 내던 그때. 교생들을 웃고 울렸던 3주간의 교생실습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한다.

3주간의 교생실습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지도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어고 고된 일정의 연속, 교사가 되는 길은 멀고도 힘하다. 이 속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다양하다. 흔히 저학년 학생을 '외계인'이라 표현한다. 수업 중 어디로 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외계인들의 행동은 항상 교생들의 예상 밖이다.

◇**학생들은 외계인?**
A교생은 긴장과 설렘 속에 수업을 앞뒀다. 수업을 위해 몇날 며칠 밤을 새고 수없이 수업을 복기하고 연습한 채 수업에 들어

갔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학생들 앞에서 펼쳤다. 그러나 돌아온 한 학생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선생님, 수업 노잼" 얘기지 못한 한 학생의 반응에 울상을 지은 A교생은 당황했고 수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망했다.

아이들의 말은 굉장히 직설적일 때가 있다. 별 생각 없이 그저 솔직히 말하는 것이겠지만 때론 교생들에게 상처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지 못한 상황은 흔하지 않지만 가끔 일어나곤 한다. 아이들의 말뿐만 아니라 수업 중 행해지는 뜬금없는 행동들도 교생들을 당혹케 한다.

B교생은 절차부심하고 다시금 수업을 짰다. 통일 수업을 위해 현수막 등 다양한 수업자료를 직접 만들고 많은 공을 들였다. 나름 기대를 안고 수업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빠그덕 거렸다. 아이들이 현수막에 올라타기 시작하며 현수막이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통일의 염원을 담아 날리는 종이비행기도 활동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만들고 날려버렸다. 그렇게 B교생의 수업은 종이비행기처럼 날아가 버렸다.

◇웃고 울리던 실습기간, 추억 속으로

물론 이렇게 당혹하게 하는 상황도, 화가 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이상의 뿌듯함과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수업이 끝나면 흐르는 달려와 폭 안기는, 수업 때 배운 것을 쉬는 시간에 다시 따라 해보는, "선생님이 최고예요"라는 한마디 말. 힘든 실습기간을 그때도 버티고 이겨내는 데는 아이들의 뜻이 크다.

그렇게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실습 마지막 날, 아이들은 무리를 지으며 흐르는 달려와 교생휴게실을 아침부터 이리저리 기웃거렸다. 교생선생님을 찾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뼛주뼛 내미는 편지들을 바라보면 한 없는 감동을 받기 마련이다. 3주간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랄까? 마지막이라고 아이들이 준비한 이벤트, 리코더 연주와 함께 드디어 실습의 마지막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어느새 아이들의 두 눈에 그렇그렇 맺혀 있는 눈물을 떠나는 밤걸음을 무겁게 했다. 실습의 마지막에 기쁘기보단 이렇게 마지막이 오게 돼 아쉬움과 그리움만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3주간의 실습은 고된 일정이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3주간의 그 시간은 배움과 행복한 추억을 쌓았던 시간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들을 알면서도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안고 실습을 가는 것이 아닐까.

부찬우 기자

시설과 예산 60억원 들여 석면제거 공사 시작

석면 함유 시설 위해 성 등급 '무해' 판정 받아… 건강에 지장 없어
건축자재 파손 시 파생된 비산가루는 종양 유발하는 발암 물질

지난 11월 18일 발행된 본지 제946호 ('캠퍼스 곳곳에 발암물질 석면 노출' 기사 참조)에서 교내 석면검출 문제를 다뤘다.

이에 시설과는 석면조사와 함께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석면제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석면 함유시설의 위해 성 등급은 '낮음'으로 나타나 학내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및 건강에 무해함을 나타내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안심시켰다.

석면조사 결과 비석면 시설은 233,285㎡이고 석면 함유시설은 121,643㎡로 나타났다. 시설과는 남은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예산 약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산 중 8억을 투자해 리모델링 공사(생명대 2호관) 3,121㎡를 시작으로 안



전 환경 조성사업 (실험실) 3,324㎡ 공사와 함께 천정 681㎡ (사범대)보수공사 등 총 8,055㎡를 석면을 제거했다.

하지만 석면으로 구성된 건축자재가 파손된 채 방지해 두면 문제가 발생한다. 파손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확산돼 사람들의 호흡기로 들어간다면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석면은 약한 내구성을 지닌 뒷에 쉽게 부러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원 건물 석면 제거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거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더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심소연 기자

전 환경 조성사업 (실험실) 3,324㎡ 공사와 함께 천정 681㎡ (사범대)보수공사 등 총 8,055㎡를 석면을 제거했다.

하지만 석면으로 구성된 건축자재가 파손된 채 방지해 두면 문제가 발생한다. 파손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확산돼 사람들의 호흡기로 들어간다면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석면은 약한 내구성을 지닌 뒷에 쉽게 부러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원 건물 석면 제거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거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더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의 무관심은 청년의 소외로 이어지고 결국 청년 정책 실종 결과를 가져온다"며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티켓 부족한 학생들로 생활관 '몸살'

소음 공해·침 벌기 등 비상식적 행동 일삼아

학생들의 무책임을 치우는 환경미화원… "서로 주의해야"

학생생활관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세벽 3시경 A씨와 전혀 면식이 없는 B씨가 A씨 방의 문을 열고 들어와 잠을 잤다. 깜짝 놀란 A씨는 B씨를 깨웠지만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화가 난 A씨는 다음날 B씨를 찾아가 따졌고 그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이처럼 생활관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모두가 잠을 청하고 있을 시간에 복도를 뛰어다니는 것은 일상이며 응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닥은 학생들이 벌은 침으로 인해 얼룩졌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는 옛말이 됐다.

김진재(일어일문학과 1) 학생은 "아침에 화장실을 갔을 때는 어떤 학생이 바닥에 구토를 한 것을 봤다"며 "본인이 치우지 않고 가서 그것을 청소하는 것은 고스란히 청소 어머님들 몫이 돼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음식물을 마구 버려 변기 가 자주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공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적발시 퇴사조치 등을 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불리적 조치를 강요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성인인 만큼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이래 기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투척하는 학생들 때문에 생활관이 더럽혀지고 있다.

깨어 있는 청년들의 대화, '탐나는 청년이다' 토론회

설문 결과, 제주 떠나고 싶은 대학생 660여명 중 절반 이상

청년의 꿈 찾는 방법 모색 기회 "모든 청년 문제의 핵심 취업"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이틀간 '탐나는 청년이다' 제주 청년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MICE 강당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1월 27일 현지훈(산업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과정) '탐나는 청년이다' 종합기획 단장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그는 "도내 대학생 66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의 청년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하류 층이라고 여겼고 제주를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도내 대학생은 58%에 달했다"며 "이는 제주 청년으로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청년들이 많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의 무관심은 청년의 소외로 이어지고 결국 청년 정책 실종 결과를 가져온다"며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청년층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청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지훈 '청년하다' 준비위원회는 '청년을 버린 나라에 미래는 없다' 강연에서 "모든 청년 문제의 핵심은 취업"이라며 "취업준비생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28일에는 김광철(사회교육과 4) 제주 평화나비 간사가 '기억하고 행동하는 제주 평화나비 이야기' 강연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28일에는 김광철(사회교육과 4) 제주 평화나비 간사가 '기억하고 행동하는 제주 평화나비 이야기' 강연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2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탐나는 청년이다'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제주 청년들의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합니다.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일반전형)	특 전	• 석·박사과정 월 70만원 장학금 지원(Full Time) ※ 소속된 연구실에 연구교제가 있는 경우 학비지원금과는 별도로 인간비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음
모집학과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 · 제어 시스템전공, 풍력해양 · 토목공학전공) 3개 전공 •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졸업 후 진로	• 한국남부발전(주), 제주에너지공사,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주), 한국선급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지원 자격	• 전공제한 없음(이공계열 · 인문사회계열 등)	선발방법	• 본 전형은 필기고사(전공 영어, 각 전공별 전공과목)와 면접고사로 합격자 선발 • 전공영어는 영문해석문제로 출제 • 전공과목의 출제범위 및 방식은 대학원 풍력공학부 행정실(064)754-4400로 문의 바람 • 면접은 기본적인 소양, 학구적 태도, 입학후 학업계획, 영어능력을 평가함
원서접수	• 2015. 11. 30.(월) 10:00 ~ 12. 03.(목) 17: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lpsi.jejunu.ac.kr)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문의처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 • 각 전공선택에 대한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풍력공학부 행정실(064)754-4400로 문의 바람 • 대학원 풍력공학부 홈페이지 (https://gwe.jejunu.ac.kr) 공지사항의 "2016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및 "예비신입생을 위한 풍력공학부 소개" 참조,
필기시험	• 필기고사: 2015. 12. 17.(목) 10:00 ~		
면접시험	• 면접고사: 2015. 12. 17.(목) 15:00 ~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제35회 백록학술상 당선 논문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의 실태 연구

: 일도1동을 중심으로

강솔이(일반사회교육전공 3)·신동섭(일반사회교육전공 3)·안근영(일반사회교육전공 3)

목 차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이론적 배경
2. 분석틀
III.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방법
IV. 원도심 도시재생의 실태 분석
1. 물리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문화적 측면
4. 의식적 측면
V. 맺음말
<참고 문헌>

I.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인구의 도시집중은 주거적인 주택, 도로, 산업 인프라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는 도시 내 신개발 또는 주변의 신도시 개발로 이어졌고 그 결과 기존의 도심은 쇠퇴하게 되었다.

원도심은 대체적으로 침체와 상주인구 감소 문제를 안고 있다. 상업기능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이로 인해 이전부터 살고 있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인구 유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 유출은 또다시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면서 현 상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더 빠르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원도심 지역에서는 상주 인구의 감소, 상업 활동의 저하는 물론 공공행정 및 업무기능의 약화, 기반시설 및 건물의 노후화, 지하화, 교통체계 및 주차환경의 악화 등과 같은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도시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과거의 단순한 경제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 계획을 벗어나 복합적인 도시 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더욱 신중한 정책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공공 기반시설들이 임기응변식으로 건설됨으로써 비효율적 토지 이용과 과밀, 불균형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는데, 1990년대를 기점으로 새개발 등의 물리적 개발 위주에서 기존 도심 재생으로 정책 기조와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그 이유는 기존 도시공간의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무계획적 도시공간은 치안·생활·교육 등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며, 최근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새개발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도시민의 욕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원도심 재생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공급의 용이성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원도심 재생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화 전략이 될 수 있다. 원도심은 오랫동안 도시가 형성돼 오면서 그곳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으며,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이 있으므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양호한 접근성과 인적·물적 자원 및 기반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원도심 재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25전쟁과 4.3사건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제주는 1955년 제주읍 시로 승격되면서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제주도청, 시청, 경찰서, 고등교육기관 등 대부분의 고등시설이 위치하면서 명실상부 제주의 중심가로 발전했던 원도심 지역은 1990년대부터 서서히 노령, 연동 등의 신제주의 발전으로 인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도심의 발전은 지역 간 인프라의 격차를 불러오게 되고, 이로 인해 양 지역 간 주민들의 삶의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제주시의 인구가 매달 1,000명 이상 증가하지만 원도심의 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던 1997년 외환위기는 원도심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 이로 인해 원도심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으며, 지방정부 측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원도심을 재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제주도정과 제주시에서는 상주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는 2001년부터 제주시 원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은 '제주시 도시기본계획'과 '제주 광역도시계획'에 토대를 두고 있다.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제주시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다룬 것이다. 제주광역도시계획은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추진방향과 흐름을 이어받아 발표되면서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에 도시재생사업 타당성의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되었고, 2009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20년간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였던 제주광역도시계획은 2008년 당시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결국 2011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었고, 수립했던 재정비촉진계획은 결국 폐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 원도심 중에서도 쇠퇴 현상과 인구 유출 현상이 심각한 일도1동의 도시재생 현황을 분석틀에 따라서 분석하고, 원도심 도시재생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보기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이론적 배경

1) 원도심의 개념

원도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도심의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도심이란 문화·업무·상업·서비스 등 여러 가지 기능이 결집되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하나의 도시 안에 나타나는 최상위 중심기능의 집적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어서 원도심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과거 도시의 중심으로 주요기능 및 활동이 이루어지던 중추적인 장소였으나 현재 도심 외곽지역의 급속한 재개발과 도심 노후의 방치로 인해 도심의 기능이 약화 및 소멸되어 버린 지역'을 말한다.

또한 원도심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한 논문, 자치법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인천발전연구원(2003)에서는 원도심을 과거 중심지역으로서 매력과 힘입력을 상실하게 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1> 자치법규에서의 원도심 개념 정의

구분	자치법규	원도심 정의
광양시	제2조 2항	도심의 업무·상업·주거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
군산시	제3조 1항	행정적·경제적·문화적 기반 등 관련 기능 중심지역
목포시	제3조 2항	도심의 업무·상업·주거기능이 중심이 되었던 지역
원주시	제2조 1항	원래 도심의 중심기능이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원래 도심
의산시	제3조 1항	행정적·경제적·문화적 기반 등 관련 기능이 중심지역

본 논문에서는 원도심의 개념을 인천발전연구원(2003)이 제시한 원도심의 개념과 <표 1>에서 원주시 자치법규 제2조 1항의 개념과 같이 '원래가지고 있던 도심으로서의 중심기능이 외곽으로 분산되어 침체된, 도심의 기능이 약화 및 소멸되어 버린 지역'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원도심은 과거 주변의 지역보다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여 소규모의 산업·상업·업무활동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게 되어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던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가 몰리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신도심의 개발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도시의 기능이 뒤쳐지고 중심기능이 분산되면서 이전의 매력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결국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던 인구는 주변의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상주인구의 감소효과는 일시적인 현상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2)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재개발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재개발이란 도시 인구의 증가나 산업기술의 발달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말미암아 기존의 도시환경이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말한다. 이렇듯 재개발은 주거환경개선, 주택 공급의 문제,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대처를 위한 도시 문제로 인식된다.

반면에 도시재생은 종합적인 형태의 정책과 실천, 통합적 처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공공과 민간 그

리고 자원봉사 재원 간 균형을 두고 커뮤니티의 역할을 강조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989호, 2015.1.6. 타법개정] 제1장 제2조(정의)에서 '도시재생' 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함으로써 물리적·환경적, 경제적, 생활·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도시재개발, 도시재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분석틀

본 연구는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요 초점으로 삼아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의식적 측면을 분석변수로 설정하였고, 그 분석초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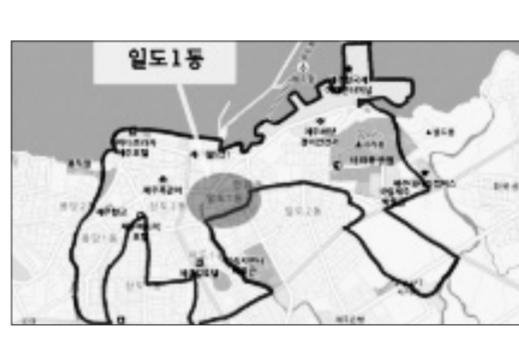
1. 연구대상

제주시 원도심은 일도1동, 용담1동, 삼도2동, 건입동, 이도1동으로 불 것이다.

<그림 1> 원도심 위치



<그림 2> 일도1동 위치



자치위원회 관계자, 남
일도1동 관계자, 남
TF팀 건축학과 교수, 남
벽화작가, 남

<표 5> 심층면접 대상자

심층면접법을 통해 원도심 도시재생 정책의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질문지법을 통해 일도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현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에 대해 조사하였다. 2015년 5월 16일~17일에 걸쳐 질문지법을 실시하였다. 조사활동 결과 총 121부의 질문지를 수거하였으며, 그 중 유의미한 104부를 통계 분석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14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6>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항목	비율(%)
성별	남	52.9
	여	47.1
연령	20세 미만	3.8
	20세~29세	12.5
	30세~39세	16.3
	40세~49세	22.1
	50세~59세	15.4
	60세 이상	29.8
학력	초졸	8.7
	중졸	18.3
	고졸	41.3
	대학졸	29.8
	대학원	1.9
거주기간	1년 미만	4.8
	1년 이상~5년 미만	18.3
	5년 이상~10년 미만	17.3
	10년 이상~20년 미만	18.3
	20년 이상	41.3
직업	농업	2.9
	자영업	39.4
	공무원	2.9
	주부	15.4
	전문직	15.4
	학생	10.6
	무직	6.7
	기타	6.7

<표 6> 조사대상자의 특성

IV. 원도심 도시재생정책의 현황 분석

1. 물리적 측면

물리적 측면의 분석초점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중교통의 편리성', '주차장·광장·도로·공원 확충', '편의·문화시설 확충'이다.

1)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일도1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도시의 경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하여금 살고 싶은 도시로 느끼도록 한다.

일도1동을 포함한 원도심에서는 소규모 복록단위 개발 등의 정비 사업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낙후지역의 도심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웅자제도 흥보 강화를 통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중·개축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2013년에 도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2014년에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을 설치하였다.

일도1동에서는 관덕로 15길의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명품디자인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관덕로 15길 명품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관광객과 도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거리 문화를 조성하였다.

제주시 원도심 중심권인 금강제화·탑동간 도로에 대하여 전선지중화 사업과 도로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원도심 지역 중심도로로서 기능 회복과 다시 찾고 싶은 거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3년 '관덕로 11길 전선지중화 및 가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08년 지정되었던 제주시 원도심 재정비촉진지구가 2011년 해제되면서 중단되었던 원도심 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우·오수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기반시설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이다.

2) 대중교통의 편리성

<p

대중교통의 편리성 제고와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원도심과 신 거주 밀집지역, 공·항·면간 대중교통 연계노선을 신설·조정하였다.

<표 7> 신설·조정된 주거 밀집지역과 원도심을 잇는 노선과 노선도

노선 조정 (30번 3대) :

터미널~탑동~터미널→화북휴먼시아~동문로

터리~탑동~노형주공

노선 신설 (70번 4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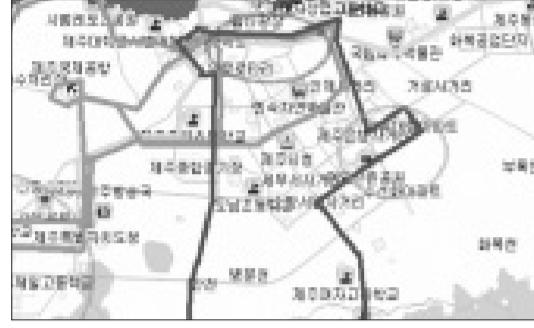
원도심~용담~여상~터미널~원도심 노선 신설

(17번 3대, 5.21일) : 노형주공 ~ 서사로 ~ 대학

동 ~ 이호해수욕장

노선 신설 (9번 2대) :

한라도서관~용담~여상~일도지구~제주대



<표 8> 관광객의 원도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설·조정된 노선과 노선도

국제부두↔원도심↔공항 연결 노선 신설

(90번, 95번 각 3대)

90번 : 국제부두~원도심(여상~동문로터리~용

담)~공항~신제주

95번 : 국제부두~임항로~터미널~공항~신제주

노선 조정: 공항 경유 조치 (38번 5대) :

하귀~공항~용담~함덕



3) 공원·광장·도로·주차장 확충

공원과 광장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주차장과 도로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여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든다.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한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탐라문화광장, 김만덕 기념관, 금산수원지 생태공원 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탐라문화광장 사업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중앙로~산지천간(종로2~2호선)도로개설사업'은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교통체증 심화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일도1동 일원의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원활한 물류수송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증대시키고, 원도심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4) 편의·문화시설 확충

일도1동에서는 2015년 5월에 동 차지적으로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1층은 경로당과 주민쉼터, 2층은 다목적 공간과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회관 신축은 그동안 원거리 이동 및 공간 협소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도민과 관광객의 편리한 쇼핑과 관광을 위해 도서, 관광 안내 지도, 지역상가 흉보불, 도시경 흉보불을 비치하여 정보제공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물리적 측면은 도시재생의 기본적 측면이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건설에만 치중한다면, 결국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다시 철거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어떤 형식으로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까지도 계획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관광 상품 개발'을 분석 조집으로 볼 것이다. 차지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일도1동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은 경제 관련 사업임을 확인하였고, 일도1동의 주민들은 상권이 살아나야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경제 관련 사업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원도심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상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동문시장의 경우 기존에는 인도 불법점용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었지만, 불법 노점행위에 대해 단속과 정비를 실시한 결과 보행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제주시에서뿐만 아니라 동문시장 상인회에서도 침체된 재래시장 살리기 겸 깨끗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비를 하였다.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wow 369페스티벌'이 있다. 거리축제 wow369페스티벌은 시장경쟁력을 주최하고, 제주시 활성화구역연합 상인회 주관으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는 3다도에서 6개 시장이 9가지 즐거움을 전하는 축제라는 의미이다. 6개 시장은 동문공설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재래시장, 중앙로 상점가, 중앙 지하상

가, 칠성로 상점가이며, 9가지 즐거움은 볼거리, 체험거리, 주연거리, 살거리, 맛볼거리, 먹거리, 당첨거리, 즐길거리, 알릴거리를 말한다. 이 행사는 전통시장의 다양한 이점을 홍보함으로써 이용객 증대와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그림 3> 2014년 wow369 페스티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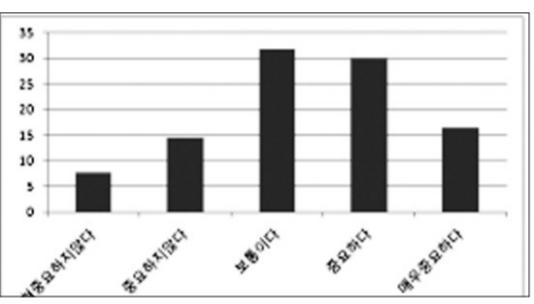
일도1동에서 이루어지는 벼룩시장으로 '맹글엉풀장'이 있다. 앞의 두 사업처럼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이외에, 이와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도 있다. 맹글엉풀장은 칠성통 문화카페 '왓집'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카페 앞 골목에서 열리며, 개별 작가들이 디자인한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이곳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주변 상점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왓집은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작은 브랜드들이 모여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곳으로, 소비자와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4> 문화카페 왓집



2) 관광 상품 개발

<표 9> 중국 및 크루즈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른 쇼핑 및 관광 상품개발의 중요도



일도1동 주민들은 '중국 및 크루즈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른 쇼핑 및 관광 상품개발의 중요도'에서 응답자의 46.1%가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22.1%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어떠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 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일도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된 사업에는 중국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가 있다. 원도심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크루즈 여객선의 제주 기항시간 연장하고 인근 상권과 연계하려는 계획이 있다. 2012년에 크루즈 여행에 나선 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유치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시 활성화구역 연합상인회가 손잡았다. 이 당시에는 대형 크루즈가 4~7시간 기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틈틈시간 동안 관광객이 전통시장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에는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과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가 협의 하에 지역상권 방문 크루즈 기항지 관광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제주지하상가 등 원도심 상권을 이용했다.

마스터플랜에는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원도심 상권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크루즈 거리를 조성한다는 항목이 있다. 현재 원도심행 버스는 시내버스와 시티투어버스만 있고, 크루즈 거리는 탐라문화광장을 건설할 때 조성될 예정이다. 관광안내원을 통해 여객터미널에서 동문시장까지 갈 때, 걸어서 가는 관광객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두 지점 간의 거리는 걸어가기엔 다소 멀고, 화물차도 다녀서 위험하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카페 왓집에서 주최하는 벼룩시장의 경우, 이는 동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민간 행사이다. 다만 개인이 기획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골목에 카페를 만들고 벼룩시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카페 왓집 사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주변 상인들 중에는 이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개인 사업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 자체에서 중재자로 나서서 이러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문화카페 왓집에서 주최하는 벼룩시장의 경우, 이는 동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민간 행사이다. 다만 개인이 기획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골목에 카페를 만들고 벼룩시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카페 왓집 사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주변 상인들 중에는 이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개인 사업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 자체에서 중재자로 나서서 이러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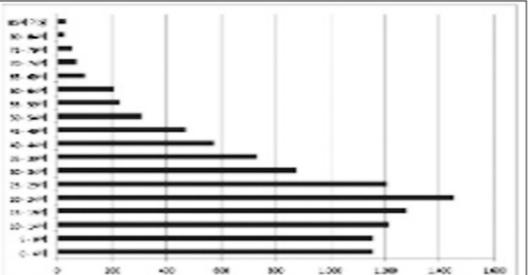
관광 상품 개발에서 크루즈 거리 조성에 관련된 사업은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 여객터미널 관광 안내원에 따르면 이곳이 가장 마지막 부두에 있기 때문에 직접 걸어서 원도심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각 부두 앞에 트럭의 이동이 빈번해 안전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크루즈 거리를 보다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미관상의 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하기 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사회·문화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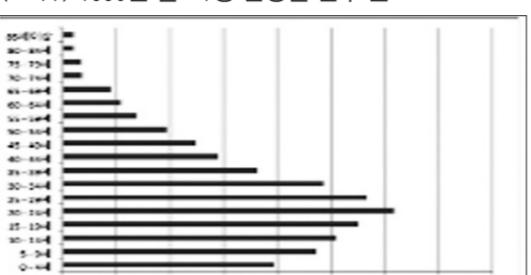
사회·문화적 측면의 분석조집으로는 '상주인구 유입'과 '지역 특색 강화'가 있다.

1) 상주인구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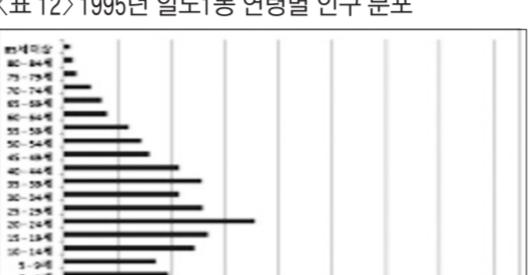
<표 10> 1985년 일도1동 연령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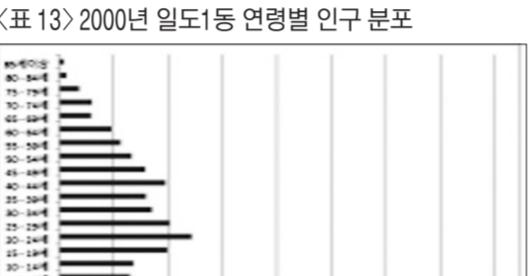
<표 11> 1990년 일도1동 연령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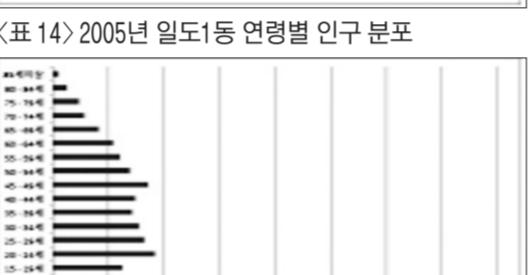
<표 12> 1995년 일도1동 연령별 인구 분포



<표 13> 2000년 일도1동 연령별 인구 분포



<표 14> 2005년 일도1동 연령별 인구 분포



교수시론

양용준
영어영문학과 교수

나가사키 평화공원과 일본의 속마음

나가사키의 평화공원이라고 하니 어딘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나가사기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결정적으로 항복을하게 되는 원폭 투하의 현장이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국 일본의 나가사기 평화공원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그렇다.

나가사기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인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연합군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비운의 땅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나가사기 시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도 할 수 없지는 않다. 연합군의 원폭투하작전에 의하면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장소로 수도인 도쿄는 제외하고 군수시설이 발달되어 있고 또한 군사령부가 있는 히로시마(8월 6일)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와 군수 및 중공업 시설이 운집해 있는 고쿠라였다.

연합군은 고쿠라에 투하하기로 하고 출격을 했으나 비행 실수, 기상 악화, 연료 부족 등의 이유로 제2폭탄인 나가사키 상공에 진입하여 공습지대를 임시목표로 핵폭탄을 투하했다.

왜 나가사기에 원폭이 투하되어야 했는지는 앞에서 보았다. 그런데 일본은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원폭 투하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마치 자신들의 회생양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면서 평화공원이라고 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국가들을 보자. 독일과 이탈리아를 예로 든다면, 전후에 자신들의 저지른 만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떳떳하게 세계의 시민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일본은 어떠한가? 나가사기의 원폭투하로 인해 많은 무고한 일본 시민이 희생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만행으로 더 많은 세계의 시민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나가사기 원폭투하가 되자 일본인만이 아닌 수많은 포로로 잡혀 간 외국인들이 같이 희생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그들에 대한 혼을 달래주려는 노력을 했던가 하는 것이다. 나가사기 원폭투하 장소를 평화공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세계에 홍보하면서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정말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표현 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일본의 국도로 우경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근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말로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TV에 간혹 흘러나오는 독도 문제라는가 위안부 문제 등을 볼 때 아직도 일본은 반성의 기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한 미국과 2차 세계 대전에서 총칼을 겨누고 싸우던 당사자가 아니던가? 그런 나라가 중국의 힘이 강해지니 서로 손을 잡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세계 강대국의 세계 질서 개편의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제일 쉬운 일부터 시작해 보자.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친절을 몸에 익히도록 하자. 그리고 독서를 하자. 책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을 찾거들망 쉬지 말고 앞으로 걸어 나가도록 하자. 이 글을 쓰면서 김진명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나가사기 평화공원은
주객이 전도된 것
일본의 우경화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

돌하르방

전지민
기획부장

'다수'라는 가면을 쓴 '가짜' 민주주의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수에 의한 폭력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반에 퍼져 소수의 다른 의견이 탄압받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침묵했고 동의했다.

소수의견이 결핍된 사회를 현대 민주주의 환경에 적용해 보자. 동성애자·흑인·빈민·여성·노인과 같은 소수 집단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를 위한 투표는 '대단한 성자 납섰네'라고 조롱받는 위선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늘날 올바른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 소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그 방법이 '대화와 타협'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 '숙의민주주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거리로 나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경찰을 때리고 버스를 부시면서 시위를 하는 걸까?

서영표(사회학과) 교수님은 사회운동은 소통이 막혀 있어 자신의 의사가 공식화된 통로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자기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격렬한 시위로 발전하는 경우는 정치적 시스템이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936호, 담론통: 사회통 참조).

이 행위는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권리이다. 존 롤스는 <사회정의론>에서 시민 불복종에 대한 법상의 이론이 항의를 규정하고 그것을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반대와 구분한다. 그리고 그 이론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와 정의로운 민주 체제 속에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조건들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박근혜 집권 하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무식한 정권에 침묵하고 공포에 의해 자기 겸멸하는 사회이다. 사방으로 소통은 막혀 있고 농민·빈민·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을 돌아올 수 없는 절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11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는 이대

로 명청히 절벽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센 몸부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소수는 고통 받고 있다. 백두관 식당 아주머니들은 자신들의 치우개선에 대해 학내에서 어떠한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에 입맛에 맞는 일만 하면 그만이고, 교직원들은 애써 자기 밥그릇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라고 협동조합 제도가 있지만 이사회나 대의원 중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는 한 명도 없다.

다수결의 원칙에는 절대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라고는 절대 말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머니들은 시위를 할 여력도 없다. 다수가 굴러가는 방향으로 힘없이 이끌려 갈 수밖에 없고 아주머니들의 침묵에 대해 다수는 정의롭다고 여기고 있을 것이다. 이를 방조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절벽 끝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는 절대 도움의 손을 요청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힘을 가지는 정치 형태로 힘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다수결 원칙' 즉 투표이다. '다수결 원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다수에 의한 폭력이며 다양성이 결여되는 전제주의로 빠진다.

역사에서 돌이켜보면 다수의 의견은 수많은 오류를 범했다. 다수의 독일인들은 지도자로 히틀러를 뽑았고,

다수결 원칙은 사회 운동은 소통이 막혀 있어 자신의 의사가 공식화된 통로로 해결할 수 없는

독자기고

버스기사 불친절 개선을

임지현
사회학과 4

다양한 경험이 진짜 '공부'

손희경
사학과 1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장애학우도우미를 하고 있다.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친구의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점심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함께한다. 성실하고 똑부러진 그 친구 덕분에 이동보조를 하는 것 외엔 사실 내가 딱히 도울 일이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고충이 있다면 바로 하교 시 버스탑승에 대한 문제이다. 야자에 대한 배려는 커녕,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조차 기지지 않는 버스운행행태 때문이다.

며칠 전의 일이다. 그 친구의 집은 버스를 한 번 놓치면 거의 3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곳이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기다리던 버스가 오는 게 보였다. 마침 정류장 앞에 다른 버스가 세워져 있어서인지 버스는 정류장 앞을 지나쳐 빠져버린 곳에 가서 차를 세웠다. 그리 멀지는 않은 거리였지만 하교시간이라 가득 찬 학생들 사이를 시각장애인인 그 친구와 함께 뚫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버스 앞까지 단 몇 걸음 남았을 때 버스가 출발하기 시작했다. 그 버스를 놓치면 오늘 오후 30분을 다시 기다려야 할 것을 생각하니 다급해졌다. 그 친구를 잠시 기다리게 하고 버스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해 '시각장애인 친구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된다'며 그대로 버스를 출발하려고 했다. 버스 앞까지 다섯 걸음 정도만 오면

되는 거리였다. "바로 근처에 있으니 금방 올 수 있다"고 하니 "바쁘다 그럴 시간 없다"는 차기운 대답만 돌아왔다. 계속 사정하자 짜증스러운 어조로 "여기 (버스 앞에) 와서 기다려야지. 빨리와라"했다. 정류장 앞이 아니라면 차가 어디에 설지 알고 미리 가서 기다리는 말인가? 겨우 그 친구를 버스에 태워 보내긴 했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다. 야간 수업이 있어 다시 학교에 올라가다가 문득 시계를 봤다. 해당 버스가 원래 출발하는 시간은 오후 4시 20분이다. 내가 그 친구를 보내고 학교입구까지 올라왔을 때 시간은 오후 4시 18분이었다.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출발하면서 1분도 안 되는 시간도 기다리지 못할 만큼 바쁘다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시각장애인인 그 친구의 도우미를 하면서 버스에 올라가는 것을 느꼈던 것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그 친구가 차에 올라타지 않았을 때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그냥 출발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버스를 시간에 맞춰 운행하는 것, 안전운전을 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기본 도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약자를 위한 배려를 바라기도 믿기 어렵다. 1년 전부터 성인기 준 버스요금은 200원 올랐다. 그러나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은 찾아볼 수가 없고 향상한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캠퍼스를 즐기라는 말이 옛말이 되었다. 대학 내에는 많은 행사가 있지만 학생들은 학업으로 인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학교를 다녔던 나는 사회를 진출하기 위한 생활만 했기 때문에 20대 초반을 스펙을 위한 삶으로 살았다. 그러나 제주대학교 교에 다니며 다른 의미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학교에는 다양한 사업단이 있는데 이 사업단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었다. 그 예로 학과 행사로 연극을 하거나 축제를 즐기거나 학교 사업단에 지원해온 것이다. 학과 공연으로 끝날 줄 알았던 우리 제주도를 넘어 육지인 전북대학교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었다. 지난 11월 3일에 열린 포럼은 전국의 다양한 대학교의 사업단들이 모여 홍보를 하고 거대한 공연장에서 선정된 학생공연 4팀이 공연을 하게 되었다. 그 중 한 팀이 바로 사학과 학생들의 연극으로 제주대에서는 최초로 선발되었다. 모든 비용은 사업단에서 지원해주어 개인경비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다. 개인의 힘으로는 상상도 못한 일이 학교 내에서 지원해준 기회를 활용하였기에 많은 인원이 제주도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가능성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경우로는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열린 스토리텔링 경진대회로 상명대, 전주대, 제주대의 세 개 대학교 학생들 총 12팀이 하나의 주제로 제한된 시간인 24시간동안 스토리텔링하여 경합하는 행사이다. 무관심으로 인해 지친 놀랄 수 있었던 기회를 학우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밤을 지새우며 만든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다.

방송계통의 심사위원 분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되었고 뜻밖에도 대상을 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금은 물론 풀파이프에서 다른 대학교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위의 경험들은 개인적으로는 알아보고 참여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스킬을 배우며 새로운 인맥을 통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다. 대학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거의 활용하지 않지만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과 다른 새로운 일들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은 학교에 주는 기회에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야!

사설

2015년 한국의 민주주의

매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프랑스영화제의 2015년 폐막작인 '디판'이라는 영화를 관람했다. 디판은 스리랑카 내전을 피해 프랑스로 간 한 남자의 이름이다. 영화가 끝나고 프랑스 영화인 두 명이 영화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기 기회가 있었다. 프랑스 사회가 오랫동안 폴레랑스(tolerance)를 내세웠지만 이제 관용의 정신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했다. 파리 테러 이후 텔레비전에 비친 하원의원들은 자기 이야기만 할 뿐 다른 사람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크게 실망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텔레비전에 비친 국회와 국무회의 모습, 대통령의 담화 발표나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 대학 강의실, 상점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았다. 대개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어념이 없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 때조차 그것은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명령을 수용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빌미를 잡기 위해서 들을 뿐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나 합리적인 상호이해가 결여되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부모들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관심조차 없다. 학생들이 의사를 표현하면 그것은 곧 반항이며 규칙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소란스러워야 할 대학 강의실이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로 차지되는 것은 아쉽다.

로 차지되는 것은 아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교수들마저도 합리적 비판과 토론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권위주의적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사소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소리부터 지른다.

모두가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살기 위해 몸부림하면서 권위주의와 힘의 논리를 체득함에 따라 윗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군림하는 것 이 몸에 각인되어 버렸다. 모방송의 드라마에서 프랑스인 마트 지점장이 내뱉은 '한국 사람에게는 권위주의가 어울린다'는 비아냥이 '모욕'이 아니라 '부끄럼'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면 집필진이 누구인지 비밀에 부치고 있다. 제주의 제2공항 부지를 발표하는 순간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이야기할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국기를 향한 국민의 몸부림은 '테러리스트'라고 낙인찍힌다. 두 명의 영화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프랑스인들의 우려는 최소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빚을 것이 없다. 만들어야 할 것만 있을 뿐이다. 최소한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토론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리·정의·창조의 가치를 되새기다

'엄친딸, 엄친아'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한국 사회의 단면은 결코 쉬이 지나칠 수 없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천재에 열광하는 모습은 빈곤한 우리의 현재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인지도 모른다. 유치원을 다닐 나이에 미적분을 험해 풀고 8살에 대학을 입학한 송유근을 보면서, 노벨상을 당장이라도 타낼 것처럼 환호와 응원을 보냈던 국민이 그의 박사논문 제출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폭죽이 깨지기도 전에 최연소 박사논문은 표절의 시비가 일었고 결국 논문 게재가 취소되고 말았다. 지도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밝히면서도 어디에서 옮겨온 것인지 숨겼던 비윤리적인 태도는 광명의 천사 루시퍼가 추락하듯 최연소 박사라는 성공신화를 지우고 18세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흘려 넘겨두었다.

우리는 아직 황우석의 성공신화가 쌓아올렸던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을 주목하였고, 척수마비가 된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할 때 윤리는 벗겨져버린 슬리퍼처럼 찾지 않는 물건이 되었다. 그의 연구가 자기 표절과 조작으로 점철되었음에도 그의 거짓 말에 사로잡힌 국민들은 제보자를 탓하고 그가 연구를 재개하기 바라며 추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황우석 사건으로 인해 세계 학계에서 한국의 논문들

이 재평가를 받아야 했으며 의심의 눈초리와 감시 속에 한동안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던 쓴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 다행인 것은 이를 계기로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 기관마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바라는 효과가實現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라산의 성판악 코스처럼 오랜 시간을 걷고 등줄기에서 흔들리면서 세상이 꼼꼼 숨겨놓은 진리는 그 민낯을 겨우 우리에게 보여준다. 연구를 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바라는 효과가實現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라산의 성판악 코스처럼 오랜 시간을 걷고 등줄기에서 흔들리면서 세상이 꼼꼼 숨겨놓은 진리는 그 민낯을 겨우 우리에게 보여준다.

